

2014년도 제56회 사법시험 2차 시행

-최고 난이도 민법...논점찾기 관건

-나머지 과목, 체감난이도 '천차만별'



〈사법시험 2차시험장 풍경〉

2014년도 제56회 사법시험 2차시험은 민법과 형소법이 유난히 높은 난이도를 보이며 합격으로 향하는 수험생들에게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6월 25일(수)부터 28일(토)까지 사법시험 2차시험이 고려대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 4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결과 체감난이도에 대한 수험생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민법과 형소법이 특히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날 시험과목인 헌법과 행정법은 일부 문제가 수험생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출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중요성이 다소 떨어진 논점과 지엽적인 부분의 출제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도 극명하게 갈렸다.

헌법은 전반적으로 주요 논점 위주로 출제됐으나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가 예상 외의 문제라는 의견들이 나왔다.

4번째 2차시험을 치른다는 수험생 A씨는 “지방자치에 관한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크게 당황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가 짝수시라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소설을 쓰고 나온 것 같은 기분이다”며 아쉬운 마음을 표현했다.

행정법은 쉽지 않았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를 보였지만 평이했다는 평

도 적지 않았다. 수험생 B씨는 “1문의 위법한 세무조사에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30점 배점으로 출제된 2문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냥 숙 지나가면서 보는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됐다” 며 “가물거물한 기억을 더듬어가며 문제를 푸느라 애를 먹었다” 는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이어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다기보다 문제를 풀면서 ‘왜 이 문제를 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는 평을 덧붙였다.

시험 둘째날도 수험생들의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상법이 전날 치러진 시험에 비해 난이도 높게 출제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전환사채에 관한 문제와 보험법 문제가 의외의 출제였다는 반응들이 나왔다.

전환사채 문제는 전형적인 논점이 아니었다는 점, 보험법 문제는 예상보다 큰 비중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을 당황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법 문제의 경우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았다기 보다 1문에서 시간을 많이 소요했던 탓에 답안을 충실히 작성할 시간이 없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수험생 C씨는 “전환사채에 관한 1문은 전형적인 논점이 아니고 숨어 있는 판례를 알아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며 “때문에 어음법과 보험법 문제의 경우 조문을 통해서도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1문에서 시간 소모가 많아 어려움을 겪었다” 고 평했다.

민사소송법은 비교적 전형적인 문제로 출제됐지만 전날 치러진 행정법과 마찬가지로 최근 중요성이 다소 약해진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면서 체감난이도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수험생들의 의견이 특히 많이 나뉜 것은 기관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대립에 대한 문제였다. 만만치 않은 난이도였다고 평가한 수험생들이 있는 반면 수험생들이 중시하지 않는 부분에서 출제가 되긴 했지만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았던 것은 아니라는 반응도 나왔다. 또 논점의 비중에 비해 배점이 지나치게 크게 느껴졌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셋째날 시험과목인 형소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험생들의 발목을 잡은 과목으로 꼽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험생들이 잘 보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됐다는 것. 특히 2문과 3문이 유난히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험생 D씨는 “1문은 첫번째 문제를 제외하면 무난한 수준이었지만 2문과 3문은 다소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다” 고 말했다. 그는 “특히 2문의 경우 답안작성에 따라 점수가 크게 갈릴 것 같다” 는 의견을 전했다.

다른 수험생 E씨도 “즉결심판과 재심 등 수험생들이 잘 보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됐다” 며 “의외의 출제에 크게 당황했다” 는 반응을 보였다.

시간부족을 호소하는 수험생들도 많았다. 수험생 F씨는 “전반적으로 답안작성이 까다로운 문제로 출제되면서 시간이 크게 모자랐다” 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올해 형법은 문제간 난이도 차이가 컸던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험이 3번째 도전이라는 수험생 G씨는 “2문 2의 경우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 된 초시생이라도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수준이었던 반면 30점 배점의 한 문제로 출제된 2문의 1은 구성요건 확정에서 실수를 하면 돌이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되는 문제로 출제됐다” 고 설명했다.

마지막 날 치러진 민법은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지목됐다. 역대 최고의 난이도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금년으로 2차시험에 12번째 도전했다는 수험생 H씨는 “지금까지 치렀던 시험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다” 고 응시소감을 전했다. 그는 “1교시에 치렀던 1문과 2문도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풀었는데 2교시에 3문 시험 문제를 풀면서 멘붕에 빠졌다” 고 덧붙였다.

1문은 배점에 비해 눈에 보이는 논점이 적었다는 점이, 2문은 함정이 많은 문제라는 점이 특징으로 꼽혔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입을 모은 3문은 문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논점을 잡아내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올해 짝수시 시험을 치렀다는 I씨는 “평소 민법은 공부량도 그렇고 나름 자신이 있는 과목이었는데 3문에서는 뭘 물어보고자 하는지 파악하기조차 어려웠다” 며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이처럼 이번 2차시험은 민법과 형소법이 특히 어려운 난이도를 보인 가운데 그 외의 과목들은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에서 큰 격차를 보이며 결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마무리됐다. 올해 선발예정인원은 200명, 누가 난관을 뚫고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될지 그 결과는 10월 8일 공개될 예정이다.

(법률저널 인용)